



韩国语后缀源流考

韓國語接尾辭源流考

姜银国◎著

 復旦大學出版社



韩国语后缀源流考
韓國語接尾辭源流考

姜银国◎著

 復旦大學出版社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后缀源流考/姜银国著. —上海:复旦大学出版社, 2015. 7
(攻玉文丛)
ISBN 978-7-309-11343-3

I. 韩… II. ①姜… III. 朝鲜语-词缀-研究 IV. H55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15)第 063205 号

韩国语后缀源流考

姜银国 著
责任编辑/唐 敏

复旦大学出版社有限公司出版发行
上海市国权路 579 号 邮编:200433
网址:fupnet@fudanpress.com http://www.fudanpress.com
门市零售:86-21-65642857 团体订购:86-21-65118853
外埠邮购:86-21-65109143
当纳利(上海)信息技术有限公司

开本 890 × 1240 1/32 印张 7.25 字数 198 千
2015 年 7 月第 1 版第 1 次印刷

ISBN 978-7-309-11343-3/H · 2453
定价: 25.00 元

如有印装质量问题, 请向复旦大学出版社有限公司发行部调换。
版权所有 侵权必究

서 문

주지하다시피 거의 모든 언어에서 허사(虛辭)들은 일반적으로 실사(實辭)로부터 일련의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발달되는데 실사의 허사화(虛辭化) 과정에서는 하나의 허사가 하나의 실사로부터 발달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실사로부터 여러 개의 허사가 발달되기도 한다.

한국어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나의 실사에서 기원되어 음운변이와 함께 일련의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각이한 형태의 단어구성 형태소로 발달된 접사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예를 들면 현대어에서 접미사 '-악/-역, -옥/-육, -앙/-영, -옹/-용, -아기/-어기, -아지, -아리/-어리' 등은 비록 각이한 음절 형태로 구성되었지만 중 세어에서 벌써 '지소접미사란 공통된 의미적 특성을 갖고 새로운 명사 조성의 형태소로 매우 활발히 쓰이었다. 또 예를 들면 접미사 '-답/-답, -릅/-랍/-럽/-롭, -스립, -갑/-첩, -압/-업, -브/-브/-브' 등도 중세어에서 벌써 모두 '어떤 대상 또는 상태가 갖고 있는 특성과 같은 그런 성질이 있음'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형태소로 활발히 쓰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부류의 접미사들이 하나의 실사에서 기원되어 음운변이와 함께 일련의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 발달된 형태소들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한국어 접미사들의 원류를 밝힘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접미사들은 한 부류로 묶어 고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년 전에 출간된 줄저 『조선어접미사의 통시적 연구』에서는 개개 접미사들의 변화 발전 과정을 밝히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동일한 의미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접미사들을 부류 별로 고찰해 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차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복단대학교 외문대학의 학술연구 경비의 지원에 힘입어 이런 동일한 의미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접미사들을 한데 묶어 부류별로 그 원류를 밝히는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편폭상의 제한으로 동일한 의미 기능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접미사들 가운데서 조어력이 강한 명사조성의 [m]계 접미사(‘-ㅁ/-음, -음/-암/-엄, -움/-움’), 명사조성의 [kɛ/ɛ]계 접미사(‘-개/-게, -애/-에’), 명사조성의 [k/ŋ]계 접미사(‘-악/-역, -옥/-옥, -양/-영, -옹/-용, -아기/-어기, -아지, -아리/-어리’), 형용사조성의 [p]계 접미사(‘-답/-답, -랍/-랍/-롭, -갑/-겁, -압/-업, -ㅂ/-브/-부/-브’)만 추려서 그 원류를 밝히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이 책에서 인용한 문헌 자료들 중에는 20여 년 전에 출간한 『조선어접미사의 통시적 연구』란 박사학위 논문에서 인용했던 문헌 자료와 일치한 것들이 적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이 책이 박사학위 논문을 집필하면서 남겼던 아쉬움을 달래고자 집필된 것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박사학위 논문의 속편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 책이 오늘 이렇게 거친 모습으로나마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를 배움의 길, 학문의 길로 이끌어 주신 국내외에 계시는 여러 은사님들의 가르치심과 방조가 있었기에, 그리고 또 복단대학교 외문대학의 학술연구비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필자의 지식과 능력의 제한으로 이 책에는 그릇된 견해, 착오적인 주장 등을 중심으로 미흡한 점들이 많으리라 생각되면서 독자 여러분들의 혹평을 바란다.

필자로부터

2015년 1월 20일

차 례

서문	1
I . [m] 계 접미사 원류고	1
1.1 [m] 계 접미사의 쓰임에 대한 사적 고찰	1
1.2 [m] 계 접미사에 대한 어원학적 고찰	45
II . [kɛ/ɛ] 계 접미사 원류고	55
2.1 [kɛ/ɛ] 계 접미사의 쓰임에 대한 사적 고찰	55
2.2 [kɛ/ɛ] 계 접미사에 대한 어원학적 고찰	81
III . [k/ŋ] 계 접미사 원류고	91
3.1 [k/ŋ] 계 접미사의 쓰임에 대한 사적 고찰	91
3.2 [k/ŋ] 계 접미사에 대한 어원학적 고찰	120
IV . [p] 계 접미사 원류고	133
4.1 [p] 계 접미사의 쓰임에 대한 사적 고찰	133
4.2 [p] 계 접미사에 대한 어원학적 고찰	196
부록	216
1. 인용 문헌의 약호	216
2. 음운 전사 기호	221
3. 참고논저목록	223

1. [m]계 접미사 원류 고

[m]계 접미사란 ‘-암/-엄’, ‘-음/-움’, ‘-ㅁ/-음’ 등과 같이 접미사의 말음에 ‘ㄹ’이 들어 있는 접미사를 가리키는데 이 부류의 접미사는 한국어 명사 조성에서 가장 활발히 쓰이어 온 단어조성 수단의 하나로 언어 발달의 전 행정에서 수많은 명사들을 파생시켰다.

예를 들면 지금 일상 언어생활에서 활발히 쓰이는 ‘그림, 기쁨, 웃음, 울음’, ‘꾸지람, 마감, 사람, 잠’ 등과 같은 명사 그리고 지금은 쓰이지 않거나 그리 활발히 쓰이지 않는 ‘므춤, 브름, ㄱ람, 이럼’, ‘싸흠, 즈오름, 빗흠, 기춤’, ‘여름, 헤음, 둥고림, 사김’ 등과 같은 중세어의 명사들이 모두 이 [m]계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들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어 명사 조성에서 수많은 단어들을 파생시킨 [m]계 접미사의 제반 유형들의 쓰임에 대한 사적 고찰과 어원학적 고찰을 통하여 이 [m]계 접미사가 역사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발달되어 온 형태소인가를 밝히는 것을 기본 과업으로 삼는다.

1.1 [m]계 접미사의 쓰임에 대한 사적 고찰

명사 조성의 [m]계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조성할 경우 어떤 선행모음을 취하는가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그런데 [m]계 접미사는 기타 계열의 접미사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동일한 하나의 명사를 조성함에 있어서 고정된 어느 한 선행모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러 가지 부동한 선행 모음을 취한다. 그러므로 [m]계 접미사의 각이한 유형들의 쓰임에 대한 사적

고찰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명사를 조성함에서 어느 한 선행모음이 주로 쓰이었는데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다.

이런 상대적 분류 기준에 따라 우리는 [m]계 접미사를 편의상 [em/am/Λm]계 접미사, [om/um]계 접미사, [m/wum]계 접미사 등과 같은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1.1.1 [em /am /Λm]계 접미사

[em/am/Λm]계 접미사는 주로 동사에 붙어 새로운 명사를 파생시킨다.

① /kel(ta)+em>kerem(ㄱ렘)/

중세어에서 ‘대신, 교체’ 등의 뜻으로 쓰이던 명사 ‘ㄱ렘’은 ‘替’의 의미로 쓰이던 동사 ‘굴(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단어이다.

- 나랏 일홈 ㄱ렘시니 (용가 85)
- 새 님그미 ㄱ렘시니 (두해 21:23)
- 새 옷 ㄱ라 님고 (석보 6: 27)
- 벼슬 ㄱ다(替代) (역어 상 13)

위의 동사 ‘굴(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명사 ‘ㄱ렘’은 15세기의 문헌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 사르물 ㄱ렘 흐시며 (농업 5:69)
- ㄱ렘 받디 아니 흐느니라 (남명 하 33)
- ㄱ렘 대(代) (유합 상 4)

파생명사 ‘ㄱ렘’은 동시기의 문헌에서 ‘ㄱ람’의 형태로도 활 발히 쓰이었다.

- 그 므레 돛가쇼되 식거든 ㄱ람 흐라 (구간 6:50)

- 사르물 ㄹ람 흐라 (구급방 상 10)
- 겨집중 두어홀 서르 ㄹ람 내야 뵈니 (태평 1:39)

파생명사 ‘ㄹ람, ㄹ람’은 현대어에 이르러서는 접미사의 선행모음이 /w/로 교체되면서 ‘갈음’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② /meŋʰ(ta)+em>meŋʰem(ㄹ춤)/

중세어에서 ‘終’의 의미로 쓰이던 명사 ‘ㄹ춤’은 ‘完了’의 뜻을 나타내던 동사 ‘뫓(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단어이다.

- 물러가던 덴 목숨 ㄹ춤리잇가 (용가 51)
- 十行과 十願과 十地로 漸次를 사마 等妙애 ㄹ춤되 (능엄 8:22)
- 矣는 말 뫓는 입겨지라 (언해)
- ㄹ춤다(完了) (동문 하 61)

위의 동사 ‘뫓(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명사 ‘ㄹ춤’은 정음 창제 초의 문헌에서부터 벌써 활발히 쓰이기 시작했다.

- 終은 ㄹ춤미라 (언해)
- 처섬 ㄹ춤물 알리노니 (석보 서 2)
- ㄹ춤맨 悲로 智를 일우느니 (법화경 5:51)
- 효도ㅣ ㄹ춤이며 비르숨이 (소학 2:32)
- ㄹ춤 중(終) (자회 하 35)

③ /perɛ(ta)+em>perem(버름)/

중세어에서 ‘壁’을 의미하던 명사 ‘버름’은 ‘塗’나 ‘糊’의 의미로 쓰이던 동사 ‘버르(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단어이다.

- 굴으로 버르고 (석보 6:38)
- 香油로 모매 버르고 (법화경 6:141)

● 흙 브를 도(塗) (유합 하 14)

위의 동사 ‘브르(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명사 ‘브름’은 정음 창제 초의 문헌에서부터 매우 활발히 쓰이었다.

- 石은 돌히오 壁은 브르미니 브름 ㄱ티 셴 바회를 石壁이라 하느니라 (석보 9:24)
- 西스녁 브르매 가라 하야든 (능엄 9:116)
- 브름에 걸라 (노해 상 22)
- 바람 벽(壁) (자회 중 5)

그런데 견해에 따라서는 파생명사 ‘브름’을 동사 ‘브르(다)’에 접미사 ‘-ㅁ’이 붙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세어에서 ‘塗’나 ‘糊’의 의미로 쓰이던 동사가 ‘브르(다)’의 한 형태로 고정되어 쓰인 것이 아니라 ‘브르다’의 형태로 쓰이기도 했다.

- 브르다(塗襟) (동문 상 36)
- 브르다(裓糊) (한청 12:8)

만약 위의 견해에 따른다면 이 동사로 부터 파생된 명사는 ‘브르(다)+ㅁ>브름’으로 되어야 할 것인데 중세어의 문헌에서 ‘壁’을 ‘브름’으로 표기한 실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파생명사 ‘브름’도 언제나 이 한 형태로 고정되어 쓰인 것이 아니라 ‘브람’, ‘바람’ 등의 형태로도 쓰이었기 때문이다.

- 브람 벽(壁) (유합 상 23)
- 브람 꾸석의 드랏다가 (중박해 중 34)
- 브람스 벽(壁) (동문 상 35)
- 風壁同訓 바람 (아언 권지 1)

이상의 고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세어에서 ‘벽’을 의미하던 명사는 [-음/-암/-엄]계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단어임은 의심할 바 없다.

④ /sal(ta)+em>sarem(사름)/

현대어의 명사 ‘사람’은 중세어에서 ‘生’ 또는 ‘居’의 의미로 쓰이던 동사 ‘살(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명사 ‘사름’으로부터 변화 발달된 단어이다.

- 몇 間^ㄷ 지비 사르시리잇고 (용가 110)
- 便安히 사름 디를 새로 세여 (능엄 3:87)
- 살 거(居) (자회 하 19)
- 사도 아니 흐며 죽도 아니 흘씨니 (월석 2:16)

위의 동사 ‘살(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명사 ‘사름’은 정음 창제 초의 문헌에서부터 매우 활발히 쓰이었다.

- 사름 쓰디리잇가 (용가 15)
- 人은 사르미라 (석보 서 1)
- 나랏 사름을 다 뵈호시니 (천강 38)
- 사름 신(人) (자회 하 2)
- 살음이 처자와 화동하여사 어버이 즐겨흐리니 (정속 7)

위의 파생명사 ‘사름’은 규정형^[1](주로는 규정형 ‘-르’) 아래서는 ‘싸름’의 형태로 쓰이기도 했다. 이는 정음창제 초의 문헌들에서는

[1]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규정형’은 한국의 많은 문법서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형형’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규정형’이나 ‘관형형’은 통사론에서의 문장성분과 관련된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인데 통사론에서 뒤에 오는 체언을 한정해 주는 성분을 관형어라 부르는 데는 일정한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서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강은국 (2008:225-226) 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음주의 맞춤법을 기본으로 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 經디닐 싸라미 이어긔 이셔도 (석보 19:17)
- 行할 싸랴기로 信을 브터 向하야 (능엄 8:22)
- 보스을 싸랴기로 損흠 업스며 (법화경 2:17)
- 北方 싸랴물 (월석 10:23)

지금까지 고찰한 ‘살(다)>사름’은 후기의 문헌으로 내려오면서는 간혹 ‘슬(다)>스름’의 형태로 쓰이기도 했다.

- 깃거 슨 고디라 (계초 26)
- 스통를 부리고 (삼략 상 18)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현대어의 ‘사람’은 ‘살(다)+음>살음>사름>사람’의 경로를 거쳐 발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⑤ /ʃa(ta)+em>ʃem(잠)/

현대어에서 ‘睡眠’의 뜻으로 쓰이는 명사 ‘잠’은 중세어에서 ‘睡’를 뜻하던 동사 ‘자(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명사 ‘잠’으로부터 발달되어 온 단어이다.

- 건너디 묻하야 7새셔 자다니 (월석 10:24)
- 수푼 그테 안자 이트를 자디 (두해 7:23)
- 잘 슈(睡) (자회 상 30)

위의 동사 ‘자(다)’에 접미사 ‘-음’이 붙어 파생된 명사 ‘잠’은 정음 창제 초의 문헌에서부터 매우 활발히 쓰이었다.

- 잠 드로미 ㅎ마 기프니 (두해 8:28)
- 처섬 出家하샤 잠 잘 자거시늘 (남명 상 25)
- 깃거 잠 자디 묻호락 (맹자 율곡 6:60)

○ 松根을 베어 누어 풋즙을 얼푯 드니 (송강 관동별곡)

후기의 문헌으로 내려오면서 파생명사 ‘즙’은 현대어에서와 같이 ‘잠’의 형태로 쓰인 실례도 얼마간 발견된다.

○ 선잠 씌어나지 말아 (해동 p82)

○ 네 우름소리 잠 못 니러 (남훈 p2)

이런 원인으로 인해 일부 문법서들에서는 현대어의 명사 ‘잠’을 동사 ‘자(다)’에 접미사 ‘-口’이 붙어 파생된 단어로 해석하기도 하는데^[1] 이런 해석은 공시적 연구, 즉 현대어의 경우만 고려할 때에는 그럴 법도 하지만 어원학적으로는 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것은 동사 ‘자(다)’에 접미사 ‘-口’이 붙으면 ‘잠’이란 명사가 파생되는 것만은 사실이나 위의 고찰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문헌상에서 ‘잠’이 쓰인 실례는 18세기 문헌에 이르러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이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모두 ‘즙’의 한 형태로만 쓰이었다. 그러니 동사 ‘자(다)’에 접미사 ‘-口’이 붙어 파생된 명사는 ‘잠’의 형태로 될 수는 있지만 ‘즙’의 형태로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현대어의 ‘잠’이 동사 ‘즈(다)’에 접미사 ‘-口’이 붙어 이루어진 단어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견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이 견해가 성립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동사 ‘즈(다)’의 존재이다. 그러기에 이들도 우선 문헌에는 비록 ‘즈(다)’의 형태가 보이지 않지만 ‘자(다)’와의 쌍형태로 볼 수 있다는 가설을 펴고 있다.^[2] 그런데 그 어떤 가설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1] 김민수 외(1997) 『우리말 語源辭典』 879 쪽 참조.

[2] 김민수 외(1997:879)에서는 ‘잠’의 어원을 “즈-[眠, 寢]+口(접사)”라고 하면서 “‘즙’은 동사 ‘자다’에서 파생된 말이다. 문헌에는 ‘즈다’의 형태는 보이지 않고 ‘자다’가 있으나 둘을 쌍형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

일정한 사료에 의해 그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동사 ‘즈(다)’의 형태가 쓰인 실례가 중세어의 문헌에서는 물론 방언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가설이 성립될수 없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 어떤 가설의 실증을 위해 실존도 하지 않은 ‘즈(다)’를 ‘자(다)’의 쌍형태로 인정하려는 것은 지나친 무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현대어의 명사 ‘잠’은 ‘자(다)+음>자음>즙>잠’의 경로를 거쳐 발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⑥ /kuffit(ta)+am>kuffiram(구지람)/

현대어의 ‘구지람’은 중세어에서 ‘罵’를 뜻하던 동사 ‘구진(다)’에 접미사 ‘-람’이 붙어 파생된 명사 ‘구지람’으로부터 발달된 단어이다.

- 모던 이브로 구지드며 비우스면 (월석 17:78)
- 무렛 衆을 구지드며 (농업 9:108)
- 方便으로 구지저 슬피게코 (법화경 2:212)
- 그 아비 그 색니물 구짓고 (석보 11:26)

위의 예문에서 동사 ‘구진(다)’의 말음 ‘ㄷ’이 모음 앞에서는 ‘ㅈ’으로 교체되는 것은 구개음화의 결과이다.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구지람’은 정음 창제 초의 문헌에서부터 상당히 활발히 쓰이였다.

- 구지라물 드로디 (월석 17:84)
- 상네 구지라물 니부디 (법화경 6:80)
- 주구매 니르드록 구지람 마고미 어렵도다 (두해 7:27)
- 구지람과 誹謗을 困ᄃ야 (남명 상 42)

그런데 중세어에서 ‘罵’를 뜻하던 동사 ‘구진(다)’는 16세기의 문헌에서부터는 ‘꾸진(다)’의 형태로 쓰이기 시작한다.

- 꾸짓고 항티 아니 햏야 (속삼강 충신 3)
- 꾸진다 (罵他) (동문 하 33)
- 꾸지즘애 니르게 (소학 2:23)
- 꾸지즐 즐(叱), 꾸지즐 매(罵) (유합 하 26)

그러나 위의 동사 ‘꾸진다’에서 파생된 명사 ‘꾸지람’은 17세기의 문헌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다.

- 達人의 꾸지람 드외요물 (중두해 1:48)
- 늑의게 꾸지람 드르리라 (노해 상 34)
- 너일 사름의 꾸지람 나리라 (노신해 1:28)
- 꾸지람 듯다(喫罵) (역어 상 31)

16세기의 문헌에서는 ‘꾸지람’의 다른 한 변이형인 ‘꾸지럼’이 간혹 보일뿐이다.

- 얼우네 꾸지럼은 전혀 저티 아니 햏느니라 (은중경 16)

그리고 15세기의 문헌에서 활발히 쓰이던 명사 ‘구지람’도 간혹 ‘꾸지럼’의 형태로 쓰이기도 했다.

- 샹네 구지럼 드로디 (석보 19:30)

이와 같은 사실은 접미사 ‘-암’과 ‘-엄’은 동일한 한 접미사의 음운 변이 형태임을 설명해 준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현대어의 명사 ‘꾸지람’은 동사 어간 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와 결합될 때 ‘ㄷ>ㄹ’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꾸진다’>‘꾸진다’+암> 구지람>꾸지람>꾸지람의 경로를 거쳐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⑦ /nil(ta)+λm>nirλm>irλm(이림)/

중세어에서 “갈아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뜻하던 명사 ‘이림’은 ‘起, 興’을 의미하던 동사 ‘닐(다)’에 접미사 ‘-엄’이 붙어 파생된 단어이다.

- 大風輪이 닐어늘 光音天이 한비를 누리와 (월석 1:39)
- 닐 波濤ㅣ 싸홀브터 니는다 니르리오 (금삼해 3:90)
- 닐 起(起) (자회 하 27)

위의 동사 ‘닐(다)’에 접미사 ‘-엄’이 붙어 파생된 명사는 마땅히 ‘니림’의 형태로 쓰이어야 할 것이지만 문헌 자료에서는 ‘니림’이 쓰인 실례가 발견되지 않고 15세기의 문헌에서부터 ‘이림’의 형태로 쓰이기 시작한다.

- 온 이러미 卞호미 几按 근도다 (두해 7:36)
- 사오나온 받 열다섯 이러미 잇느니 (내훈 3:57)
- 받 이러미 東西ㅣ 업게 가랫도다 (중두해 4:2)
- 이림 묘(畝) (석천 28)

두음 ‘ㄴ>ㅇ’의 교체는 ‘녀름>여름’에서의 두음 ‘ㄴ>ㅇ’의 교체와 꼭 같은 두음법칙에 의한 음운교체 현상이다. 이 두음법칙에 의해 ‘니림’이 ‘이림’으로 교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사 ‘닐(다)’도 현대어에서는 ‘일다’로 교체되었다. 위의 파생명사 ‘이림’은 16세기 문헌에서부터는 같은 뜻으로 쓰이던 명사 ‘이랑/이렁’의 출현으로 점차 소극적으로 쓰이다가 18세기의 문헌에 이르러서는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춰버린 듯하다.

- 이랑 규(畦) (자회 상 7)
- 이렁 묘(畝) (유합 상 6)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파생명사 ‘이림’을 중세어에서 ‘成’을 뜻하던

동사 ‘일(다)’에 접미사 ‘-엄’이 붙어 ‘일(다)+엄>이럼’의 경로를 거쳐 파생된 것으로 보지 않고 동사 ‘닐(다)’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우선 단어 파생에서의 의미론적 유사성 또는 연관성을 고려해서이며 다음으로는 이 ‘이럼’을 대체해 버린 명사 ‘이랑’ 역시 동사 ‘닐(다)’로부터 파생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니랑’이 쓰인 실례도 보인다는 사정을 고려해서이다.^[1]

⑧ /mut(ta)+Λm>mudΛm(무덤)/

현대어의 ‘무덤’은 중세어에서 ‘埋’의 뜻을 의미하던 동사 ‘묻(다)’에 접미사 ‘-엄’이 붙어 파생된 단어이다.

- 음 무더 사르시니이다 (용가 111)
- 그 사름 주겨 날조쳐 사르 무더닐 (월석 10:25)
- 무들 믹(埋) (유합 하 60)
- 음을 뜻고 (청구 p 99)

위의 동사 ‘묻(다)’에 접미사 ‘-엄’이 붙어 파생된 명사 ‘무덤’은 정음 창제 초의 문헌에서부터 상당히 활발히 쓰이었다.

- 무덤 서리에 굶어다가 두리라 (월석 9:35)
- 내 외로윈 무더믈 가 울오져 스랑칸마른 (두해 24:17)
- 무덤 결퓌 막 믹야 (소학 6:24)
- 무덤 분(墳), 무덤 묘(墓) (자회 중 35)
- 밍직 어머니미 집이 무덤의 갓갓더니 (어제 내훈 3)

⑨ /fuk(ta)+Λm>fukΛm(주검)/

현대어의 명사 ‘주검’은 중세어에서 ‘死’를 뜻하던 동사 ‘죽

[1] 명사 ‘이랑’의 파생에 대해서는 제 3 장 “[k/ŋ] 계 접미사 원류 고”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